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강원지역 철도건설현장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21곳 건설현장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시행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원주~강릉 등 관내 4개 사업 구간의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결·융해로 인한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대규모 절개지, 지하 굴착부 및 건설장비의 결합상태 등을 점검하는 “해빙기 대비 철도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철도공단, 시공사, 건설사업단, 외부 전문가 약 66명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개소,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 침하·균열 등의 이상 유무, 건설장비 사용의 적정성과 결합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본부 관계자는 “해빙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사를 위해 선제적 예방점검 활동 및 현장의 안전품질문화를 정착 시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무선통신망(LTE-R)구축으로 ‘스마트 철도’ 탈바꿈

- 원주~강릉 철도사업에 우선 적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

기술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스마트한 철도운용은 물론 다양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철도노선에 적용할 LTE(long term evolution)기반의 철도무선통신망(LTE-Railway : 이하 LTE-R)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250km/h 이상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내에서도 ‘끊김현상’ 없이 데이터 통신 및 통화가 가능하도록 우선 세부적인 시스템 요구조건 등을 포함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6월부터 호남고속철도 노선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기술기준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노선에서 검증이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원주~강릉 철도건설 구간에 구축할 예정으로(원주~강릉사업('15년 설계 → '16년 착공 → '17년 완료 → '18년 서비스)), 이후 전국 철도노선에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해 열차 내에서 고속·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활용한 고객 맞춤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철도노선에 LTE-R이 구축되면, 철도 이용객에게 철도 연계교통정보, 여행정보, 역사 및 객차 내 편의시설 정보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열차제어 정보, 역사 및 열차 상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열차운용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열차의 운행·고장·지진감시 정보 및 철도시설물의 원격감시·분석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토록 구현해 철도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계획으로, 향후에는 LTE-R망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하여 재난 시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연계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LTE-R 무선통신시스템이 개발 완료되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한국철도 통신의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도원 상호통신처장은 “전국철도 LTE-R 구축계획에 맞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철도에서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이 가능하도록 구현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철도시설 개량사업 확대로 안전 높인다.

- 노후·취약시설물 집중개량을 위해 올해 4천694억원 투입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열차운행안전 확보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올해 철도시설개량 사업비를 지난 해보다 54% 증가한(증1,644억원) 4,6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차운행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후 교량·터널 등 취약 시설물 개량에 전년 대비 1,149억원 증액된 3,014억원을 집중투자하고, 내진성능보강, 스크린도어, 승강설비 등 안전 및 편의시설 개량도 전년 대비 495억원을 증액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개량사업은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의 적정 성능유지 및 내구성 확보를 통한 열차의 운행안전 확보를 목표로 시행된다.

특히 철도공단은 노후시설물 개량 외에도 철도이용객과 철도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주요 국민편의 사업으로는 ‘철도하부를 횡단하는 통로박스형 도로 확장’, ‘철도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확대 설치’, ‘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 및 이동편의를 위한 승강설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이다.

올해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사업비의 66%인 3,09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예정으로, 조기집행을 위해 재해예방시설개량 등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설계(14년 기완료)를 통해 금년 신규발주건의 71%를 상반기내에 조기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성능개선 공사가 대부분인 시설개량사업 특성상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4,1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로 서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개량사업별 세부 집행계획과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격월단위의 개량사업추진실태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실태 관리와 함께 운행선에서 이루어지는 개량사업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열차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공단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철도시설개량을 위해 2024년까지 6조7,951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1조2,591억원을 기투자해 안전시설물 보강 등 주요 철도시설물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2조 9,934억원을, 2024년까지는 총 5조 5,360억원을 투입해 시설물 개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철도시설개량 투자계획

(금액 : 억원)

구분	예산	주요 내용
총계	4,694	
① 열차안전 관련 개량이 우선 시급한 시설물	3,014	홍수위 확보를 위한 교량 개량 및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시설개량으로 자연재해 예방 * 교량 24개소, 옹벽설치 49개소 등
②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요하는 취약 시설물	1,364	내구연한(10년)이 경과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광명~동대구) 주요설비 개량으로 철도 안전성 확보 * 궤도회로(44개소), 지진감시시스템(34대) 등 주행·진로설비 개량* 고속철도 내진보강 교량 13개소 받침 교체 및 보강)
③ 생활 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 시설물	316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설치로 교통생활환경 개선* 도시주변과 어울리는 방음벽(33개소) 설치 *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151개역 중 '15년 26개역)

철도시설개량 중장기 투자계획

(금액 : 억원)

구분	총 소요	기시행 ('09~'14)	중기계획 ('15~'19)	'20년 이후
총계	67,951	12,591(18.5%)	29,934(62.6%)	25,426(100%)
① 열차안전 관련 개량이 우선 시급한 시설물	40,805	7,082(17.4%)	17,185(59.5%)	16,538(100%)
②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요하는 취약 시설물	22,728	3,400(14.9%)	10,660(61.9%)	8,668(100%)
③ 생활 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 시설물	3,480	1,190(34.1%)	2,074(95.1%)	216(100%)
종료 및 기타사업	938	919(98.0%)	15(99.7%)	4(100%)

철도개량사업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개량 전	개량 후	세부내용
재해예방시설 개량			홍수위 및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침수 및 붕괴의 위험이 높은 교량의 개량, 사면옹벽설치, 산사태 방지 시설 설치
통로박스 확장			협소한 철도 하부 통로박스에 대한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확장
교량구조 개선			철도 소음·진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판형 무도상교량을 콘크리트 유도상 교량으로 개선하여 정온한 철도 조성 및 고객만족 실현
선로구축물 개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결과 교량 및 터널에 심각한 변상이 조사된 구조물의 적기 보강 시행으로 열차안전 운행 확보
역시설 개량			노후화된 승강장 홈지붕을 개량하고, 지하역사 내 급수 및 공기 정화 등 기계장치를 개량하여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전기설비 개량			열차운행선상 철도전기시설물을 대상으로 내구연수가 경과된 안전·전기설비의 노후설비를 적기에 개량하고 현대화 등 성능 및 기능을 향상하여 최적화된 운행환경 구축

철도개량사업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개량 전	개량 후	세부내용
수도권 신호시스템 안정화	 [궤도회로 개량 전]	 [궤도회로 개량 후]	빈번한 열차운행으로 노후 가속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도권 구간의 신호시스템을 성능이 향상된 현대설비로 개량하여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열차 안전운행 확보
철도통신망 안정화	 [단선 통신망]	 [이중화 통신망]	KTX 운행구간 및 광역철도 노선의 통신망 이중화로 케이블 사고시에도 열차 운행제어와 여객취급에 필요한 각종 정보(음성, 영상, 데이터 등)를 중단없이 제공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에 기여
선로전환기 개량	 [선로전환기 개량 전]	 [선로전환기 개량 후]	열차운행의 고속화·고밀화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70년도부터 용한 선로전환기를 신뢰성이 향상된 시스템으로 개량
환경시설 개량	 [방음벽 설치 전]	 [방음벽 설치 후]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철도주변의 정오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음벽 설치 2010.1.1.일부터 강화된(야간 65dB~60dB) 소음·진동관리법에 적극 대처
소방안전 시설 개량	 [승강설비 개량 전]	 [승강설비 개량 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 교통약자에게 승강 편의시설제공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	 [스크린도어 설치 전]	 [스크린도어 설치 후]	수도권전철역 승강장의 열차접촉, 선로추락 등 여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하역사의 쾌적한 공기질 제공 및 소음개선을 위해 역객편의 증진을 위해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명	사업내용		
	개량 전	개량 후	세부내용
산업 안전시설 개량	 [교측보도 설치 전]	 [교측보도 설치 후]	교량·옹벽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개소에 교측보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원의 직무사상사고 예방 및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하고 지하역 승강장에 피난계단을 설치하여 비상시 승객이 역 및 안전한 구역으로 피난 유도
내진성능 보강	 [교량받침 개량 전]	 [교량받침 개량 후]	일반철도 기존시설을 대부분이 내진설계기준 마련 이전에 완공되어 내진성능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철도시설물은 지진에 취약하여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보강을 통해 지진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켜 지진발생 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건널목 안전설비 확충	 [지장물검지장치 설치 전]	 [지장물검지장치 설치 후]	건널목 안전설비 노후화 및 구형화로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철도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널목사고를 경감하기 위해 설비의 현대화 추진
선로시설 개량	 [콘크리트도상 개량 전]	 [콘크리트도상 개량 후]	KTX 기존선 운행구간(경부선·호남선)의 열차 고속화·운행량 증가 등에 따른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궤도구조를 강화
전철 전원급전 안정화	 [변전설비 개량 전]	 [변전설비 개량 후]	전기차량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급전용량 한계에 도달한 전철 변전소 변전설비를 확충하여 유사시 교통대란 대비
물류시설 개량			
하자관리	 [교량 하자검사]	 [터널 하자검사]	일반철도 개량 및 건설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 중 국가계약법 및 시특별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하자검사를 시행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시행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 -



강원본부는 3월 10일(수) 철도공단 직원 및 철도건설 현장의 감리단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협력사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교량, 터널 등 공사를 해야 하는 건설현장은 계곡이나 산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도도가 열악하고 소방서, 병원 등 구조기관이 멀기 때문에, 위급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4분내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해, 매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권오혁 건설기술처장은 “열차운행선 안전사고 및 추락, 전도, 낙하, 협착, 감전 등의 예방과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철도를 건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자.”고 전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규제개혁 제안센터’ 신설

- 홈페이지에서 쉽게 참여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제안 가능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국민과 기업들이 철도의 불합리한 규제에 겪는 불편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해 제안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에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개설해 3월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그 동안 공단 규제개혁팀을 구성하고, 간담회 등 자체검토를 통해 시·국세 완납증명서 제출제도 등 총 68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편을 해소했고, 이번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개설해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보다 현실적인 규제발굴·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제안대상은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주는 규제, 비용을 가중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규제개혁팀의 검토 및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처리방향을 알려주기로 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부이사장 직속의 미래발전 TF팀을 지난 1월에 구성하여, 규제개혁 추진은 물론 조직성과, 노사상생 분야에 대해서도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다.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영남권 최초 태양광발전 본격 가동

- 연간 2천555Mwh 전력생산, 약 1천톤 온실가스 감축효과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경전선 복선전철 개통(12.12월)으로 발생한 舊)경전선 노선의 경남 김해시 한림면 급곡리~장방리 일원 1.0km 철도폐선부지(2만6,000㎡)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하는 '김해 태양광 발전소'는 2,000KW 설치용량으로 연간 생산되는 2,555Mwh의 발전량은 7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용량이며, 연간 약 1,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1만 그루의 나무 식재효과가 있고,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임대료 연간 약 4천만 원의 폐선부지 사용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본부 관계자는 "복선전철사업 등으로 발생한 폐선부지를 지역주민 및 환경친화적인 공간조성을 위해 생태공원, 태양광발전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공익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 수익도 창출하여 철도건설에 따른 부채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전선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김해시 태양광발전소



[영남권 관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

소재지	사업자	허가면적(㎡)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발전용량	설치여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93-1 외 17필지	레이에너지(주)	44,128	'13.12.01. ~'23.11.30	40백만원	2.5Mwh	일부설치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825-3 외 124필지	진주철도솔라(주)	126,800	'13.01.01. ~'22.12.31	37백만원	3.3Mwh	설치예정
경북 경산시 진량읍 안촌리 108 외 23필지	솔라뱅크(주)	12,715	'14.01.01. ~'23.12.31	39백만원	0.8Mwh	설치예정
신호항역사 승강장지붕 (포항 북구 흥해 이인리)	철도솔라(주)	4,716	'14.11.10. ~'24.11.09	13백만원	0.3Mwh	설치중

개발도상국 대상 '철도기술전수 프로그램' 운영

- 몽골, 네팔초청연수 시행 및 인도현지에서 단기철도학교 운영 -

해외사업단T/F(단장 오재욱)는 이번 달에 몽골 철도관계자(14일간, 3.22.~4.4.) 및 네팔 철도관계자(22일간, 3.27.~4.17.) 초청연수교육을 시행하고, 4월에는 인도(3일간, 4.13~15) 현지에서 단기 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초청연수교육은 국내 선진 철도 기술 및 시스템 전수를 통한 철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으로, 이론 강의 외에 건설현장 방문 및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철도학교는 현지에서 철도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3일 정도의 강의와 1일 현장합동점검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단은 연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현대로템 등 다양한 철도 관련기관 및 철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다 풍부하게 구성하면서, 한국철도 산업 전반의 발전상도 소개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작년 12월 이집트에서 처음 시행한 철도학교가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아, 금년에 초청연수 교육 및 인도 현지에서 철도학교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공단은 계속해서 현지 맞춤형 단기철도학교 운영을 위해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정부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초청연수와 철도학교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철도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전쟁의 폐허로부터 60년 만에 철도 르네상스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이 값진 교훈과 모범적 선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초청연수와 철도학교 뿐 아니라 해외 인턴십 및 인력 교환근무 등 철도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혜국에는 기술습득과 철도인력 양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본부, 유관기관 비상대응 합동훈련 실시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지난 6일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대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호남고속선 영곡터널(세종시 금남면)에서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대비 비상대응 합동훈련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코레일 대전충남본부를 비롯해 세종시, 세종경찰서, 세종소방본부, 공주소방서, 세종보건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호남고속철도 터널 내에서 화재발생으로 운행 중인 KTX 열차가 비상정차 시의 상황을 설정해 신속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점검했다.

노병국 본부장은 "이번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고속철도 대형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본부 안세한 기자>

주요기사(2015. 3. 2~3. 13)

2015. 03. 02. [월]

- ◆ 철도공단 수익창출로 부채줄인다(충청투데이4)
- ◆ 인천·수원발 KTX 추진(매경8,한국14,경향16,경인2,인천3,경기3)
- ◆ 서대전역~익산역 직선화 대전-전남 공동협력 합의(중도일보1)
- ◆ 서울~부산·광주 2시간대인데... 논산~청주 2시간, 말이 되남유(한겨레19)
- ◆ 세계 철도시장 230조원 ...中·日, M&A로 덩치 키워 '서구 3강' 추격(한국경제8)
- ◆ 리커창·아베 총리 "나는 고속철 세일즈맨"(한국경제8)
- ◆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적기개통·시설개량 추진(연합뉴스)
- ◆ 박 대통령, 철도복원 등 남북공동 프로젝트 추진 촉구(건설경제)

2015. 03. 03. [화]

- ◆ KTX공주역 활성화 지자체 합심 (한국일보 13A)
- ◆ KTX공주역 활성화 지자체 합심 (한국일보 13A)
- ◆ KTX 2단계 혁신도시~무안공항 경우 이목 집중 (무등일보 04)
- ◆ 호남고속철 개통 코앞...준비는 '계절음' (전북일보 16)
- ◆ "호남철 4월 초 개통 ... 수요따라 증편" (광남일보 05)
- ◆ "100억 이상 공공공사 분할 발주해달라" (전북일보 06)
- ◆ "우라시아 철도망 연결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 (세계일보 02)
- ◆ 철도공단, 두 번째 직장 어린이집 개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 "철마는 달리고 싶다"...남한내 경원선 복원 '스타트' (뉴스1)

2015. 03. 04. [수]

- ◆ KTX 선로 직선화 한목소리(대전일보2)
- ◆ 인천시 "KTX 등 철도망 확충 구도심 활성화" (동아일보16B)
- ◆ 창원~서울 '출근편 KTX' 4월부터 매일 운행(경남신문1)
- ◆ "KTX 개통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무등일보11)
- ◆ 여주 능서 주민, 능서역~세종대왕릉역 역명 변경 요구(경기일보10)
- ◆ 인천서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철도망' 꿈 이룬다(인천일보5)
- ◆ 태국 고속철사업 수주전, 日 자금공세... 中 뒤집어(매일경제12)
- ◆ 전국 철도노선에 LTE 무선통신망 구축(한국경제)

2015. 03. 05. [목]

- ◆ 철도시설 개량 확대로 안전 높인다(중도일보4)(대전일보9)
- ◆ 경부고속철 2단계 대구 도심구간 6월 개통(영남일보13)
- ◆ 경원선 복원, 이른봄 올여름 착공(조선일보1, 10)
- ◆ "KTX 4월 개통 앞두고 연계도로망 구축 시급" (전북일보8)
- ◆ KTX 서대전~호남 구간 다시 이어질까(세계일보13)

- ◆ "광명역, KTX 경부·호남선 출발역 환원" (경기일보10)
- ◆ 두만강 하구 중국 훈춘 고속철 10월 정식 개통(경북일보2)
- ◆ 증차 미적... "일찍 출근해달라"는 시(동아일보17)
- ◆ 철도공단, 철도시설 개량에 올해 4천694억원 투입(연합뉴스)

2015. 03. 06. [금]

- ◆ 철도공단, 철도시설개량비 대폭 늘린다(내일 14)
- ◆ 중앙선 폐 철도터널 식품 저장고로 임대(강원도민 12)
- ◆ 페터널 식품저장고로 활용(강원 18)
- ◆ 경원선 남측구간 빠르면 8월 착공(강원 02)
- ◆ 세종시 전동면에 철도산단 조성(대전 05)
- ◆ KTX 호남고속철 내달 1일 공식 개통(전남 01)
- ◆ [사설]호남KTX 개통 앞두고 안전은 문제 없는가(전북 15)
- ◆ 시속 300Km ...서부 대동맥 뚫린다(중부매일)

2015. 03. 09. [월]

- ◆ 호남고속철 내달 2일부터 정식 운행(동아일보 20D)
- ◆ 호남선 고속철 광주~목포 기존선 개량 방침에 반발(경향신문 16)
- ◆ [취재수첩]개통시 따로 개통 따로 호남KTX(한국경제 34)
- ◆ 경원선 전철 연장 "전구간 고가화해야"(경인일보 21)
- ◆ 호남고속철도 개통 대비 코레일, 비상대응 훈련(대전일보 9)
-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 7787억 투입 하루 18회 운행(충주 01A)
- ◆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 23%뿐... KTX-서투버스만 복직(동아일보 3)
- ◆ 경원선 복원, 2017년 11월 개통...완전히 복원되면 용산-원산 연결(뉴스1)
- ◆ 정영아 의원 "서해안 복선전철 '평택 한산역' 설치해야"(중부일보)

2015. 03. 10. [화]

- ◆ 사업비 5조 상반기에 집행 철도공단, 경제살리기 앞장(동아일보B04)
- ◆ 성남~여주 복선전철 "능서역 명 바꿔달라" (경인일보21)
- ◆ 호남고속철 2단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무등일보3, 광남일보5)
- ◆ 추 지사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 홍보 강화해야"(충청투데이02A)
- ◆ 코트라, 이집트에 한국식 '철도경영' 전수(연합뉴스)

2015. 03. 11. [수]

- ◆ 철도관련 불합리한 제도 신고 (중도일보4, 대전일보20)
- ◆ KTX 호남고속철 마무리 점검 (대전일보2)

- ◆ 시속 302km 충북 오송이 54분 "이웃같은 느낌" (광주일보1)
- ◆ "호남 KTX 개통, 관광상품 특화 필요" (전북일보2)
- ◆ "호남고속철 개통전 광주~목포 노선 확정해야" (한겨레12C)
- ◆ 양산~부산 도시철도 시대 연다 (국민일보12A)
- ◆ 경부선철도 수도권 지하화 '한발 뺀 행정' 흐지부지? (경인일보21)
- ◆ 남구지역 개통 수인선 역명 '인하대역' 건의 (인천일보19)
- ◆ KTX 이용객 교통편의 높인다 (경북일보7)
- ◆ 별내선 복선철 분개도 (경인일보21)
- ◆ 인천공항공사 '자기부상열차' 40억 헛돈 (인천일보7)
- ◆ 美 또 열차탈선 ... 55명 부상 (서울경제10)
- ◆ 호남고속철도 내달 2일 본격운행...국토부 준비 박차 (뉴스1)

2015. 03. 12. [목]

- ◆ 호남KTX 내달부터 운행(조선일보14,경향14,파이낸셜6,내일15,광주2,중도2)
- ◆ "호남KTX로 관광객 100만 늘것...전북, 전략 필요" (한겨레12,서울11)
- ◆ KTX공주역 활성화 방안 '머리대' (중도일보01A)
- ◆ KTX오송역 명칭변경 의견갈려(충청투데이2)
- ◆ 역세권 3개 지구 도심 연계 '창조경제' 내달린다(매일신문12)
- ◆ 철도공단 규제 개선 '강화' (전기신문)

2015. 03. 13. [금]

- ◆ 철도-고속도로 건설로...충남은 지금 '路線전성' 중(동아일보19A)
- ◆ 호남선 KTX 2단계 지역균형발전 차원 접근해야(무등1,2)
- ◆ 해운대 폐선부지 방음림 관리 나몰라라(국제신문8)
- ◆ 호남고속철 서울~광주 4만6800원(국민13)
- ◆ X축의 중심 오송역 키우기 사활(중도일보10)
- ◆ KTX '오송역' 개명 찬반 논란 확산(국민일보14B)
- ◆ 논산 KTX 환원소역 신설 가속(충청투데이1)
-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순항' (한국경제30)
- ◆ 아산시, 수도권 급행전철 운영은천역 연장 추진(대전일보15)
- ◆ 원주~강릉간 철도사업 피해보상기준 공개 촉구... '주민들 반발' (뉴스1)
- ◆ 1400억원 대 경원선 복원공사 연내 발주 가능할까(건설경제신문)

경조사

감사실 기획감사부 서정봉 차장 본인상
발 인 : 2015년 3월 13일